



한국의 근대 놀이문화  
서종원 지음

놀이문화의 현대적 의미 고찰

많은 사람들은 '놀이'를 아주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단순한 유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놀이는 생각보다 등장 시기가 오래 되지 않았고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행해졌다. 중앙대와 한중대에 출간하고 있는 서종원 씨가 펴낸 '한국의 근대 놀이문화'는 근대 문화의 전개 양상, 특징과 범주를 개괄적으로 시도해 놀이문화가 지닌 현대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저자는 근대 놀이문화는 시대적 양상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본다. 당시에는 신식문화가 들어왔으며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시기인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불가피했다. 이 시기는 일제의 탄압으로 상당수의 민속놀이가 중단되었는데 줄다리기, 탈춤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향유하는 놀이문화가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채플·1만2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사람 사람  
안도현 지음

사람과 추억 이야기 60여편

안도현 시인이 사람과 추억에 관한 이야기 60여 편을 담은 산문집 '사람 사람'을 펴냈다. 책은 1부 '나는 어린 시절부터 너무 멀리 도망쳐 왔다', 2부 '바다는 가을에 가장 빛난다', 3부 '사랑이 사람입니다', 4부 '꽃 피는 것 생각만 해도 열구리가 근질 근질해진다' 등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산문집에는 잊고 지낸 유년의 기억들을 형상화한 글들이 담겨 있다. 시인은 만년필, 영정수 등 사라진 추억과 일상에서 느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특유의 시적인 문체로 아우른다. 무엇보다 우리가 쓰는 언어로 담아낸 글들은 우리의 이웃의 모습을 보는 듯한 즐거움을 준다.

저자는 작가의 말에서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의 꿈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머리맡에 가만히 놓는다"며 발간 의미를 말한다. <신원문화사·1만3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전복되고 파괴될 것들...문명의 운명은 소멸과 격변

고대문명의 이해

브라이언 페이지·크리스토퍼 스카레 지음



'고대 문명'하면 흔히 인디어나 존스의 모험이나 황금 파라오를 떠올리기 쉽다. 아니면 위대한 도시와 신전, 버려진 왕궁 같은 풍경을 연상하기도 한다. 실제로 그간 출간된 고대 문명에 관한 책들은 상당수가 흥미 위주의 특징 주제에 편중돼 있었다.

고고학과 인류학계의 세계적 학자이자 베스트셀러작가인 브라이언 페이지와 크리스토퍼 스카레가 '고대 문명의 이해'를 펴냈다. 이들은 고고학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학자들로 지금까지 문화와 문명에 관한 다수의 서적을 발간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문명'이란 무엇인가. 사실 문명은 고고학자, 역사학자 등 수많은 영역의 학자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옥스퍼드 사전에는 '문명화'에 대해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아만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 즉 계몽하고 세련되게 만드는 것"이

란다. 사실 이런 정의는 '문명'이 '아만'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런 생각은 민족의 우월성을 중요시 여겼던 빅토리아 시대의 사상적 전유물이었다. 물론 오늘날에까지도 이런 관점은 널리 퍼져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고고학에서는 이 같은 견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고고학자들은 "문명을 수렵-채집 사회나 소규모 농경사회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것"으로 상정한다. 전체적인 틀에서 고대 문명을 조망해야 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저자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과 영역은 방대하다. 공간적으로 근동(近東), 지중해, 동북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까지 고대 문명의 발생지와 전개 양상을 폭넓은 시각으로 다룬다. 시간적으로 약 5000년 전 근동에서 출현한 문명을 시작으로 16세기 초 스페인이 점령한 멕시코, 페루의 문명을 아우른다.

책이 포괄하고 있는 부분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서술 방식과 내용의 체계성은 독보적이다. 특정 이론 체계를 탈피해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세계사의 문명을 기술하고 있다.

책은 모두 6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상호 논리적으로 연계돼 문명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1부는 기초 배경이 되는 주요 정의와 역사적 정보를 다룬다. 저자들은 1세기 이상에 걸쳐 고고학의 중요한 논쟁 중 하나였던 문명의 발전과 관련된 이론을 소개한다.



기원전 2600년 수메르의 서기 아비크힐 조각상(왼쪽)과 췌기문자가 새겨진 점토판(기원전 2400년경 테라코타). <사회평론 제공>

2부는 수메르, 이집트, 인더스와 최초 중국 국가의 초기 문명에 초점을 맞춘다. 3부와 4부는 기초 문명을 토대로 근동과 지중해의 후기 문명을 추적한다. 과거의 학자들이 주장했던 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기원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학설과 변별된다.

5부는 약 2000년 전 인도양 계절풍 영향으로 관개망이 조성된 지중해와 아시아의 세계를 미시적으로 접근한다. 마치



막으로 6부에서는 메소아메리카와 안데스 산맥에 걸친 아메리카 초기 국가에 대해 4개의 장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고대 문명을 관통하는 핵심적 메시지는 의외로 간단하다. 어떠한 문명도 시간의 흐름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늘 내가 본 모든 것은 모두 전복되고 파괴된 것들"이라는 말처럼 모든 문명은

격변과 확장의 운명을 안고 있다. "문명의 실존은 경쟁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풍요로운 경제적 토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복과 같은 단기 목표가 아니라, 장기 성장을 위한 생산적 투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을 말한다... 모든 국가(문명)는 '시간의 흐름'에서 표류한다. 그들은 보다 숙련되거나 많은 경험이 있든 그렇지 않든 그 흐름에서 항해했다." <사회평론·3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상실의 시대...성장을 거부하는 신인류 '철부지들'



철부지 사회  
가타다 다미 지음

고도 경제 성장기, 사람들은 열심히 일만 하면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거라 기대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계속되는 불황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삶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데 있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는 '철부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현실에서 도

피해 공상 세계에 빠지거나 과거의 영광만을 회상한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며 또한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본의 정신과 의사이자 고베 신와 여자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가타다 다미가 펴낸 '철부지 사회'는 신인류 '철부지'들을 조망한다. 저자는 다양한 임상 사례를 통해 원인과 대안을 모색한다.

성장 거부 원인은 자기에게만 만족감과 현실의 자기 자신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때 나타난다. 이들에게서 보이는 대표적인 증상은 참음성과 저항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테면 이런 것이다. 교사에게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학교에 가지 않으려는 아이, 집안에 틀어박

혀 인터넷 세계로 도피하는 은둔형 외톨이들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 이들은 조금만 힘들면 쉽게 약에 의존한다. 즉 약물을 이용해 현실을 잊으려는 양상을 보인다. 이들에게 진통제, 수면제, 신경제 등은 훌륭한 도피의 도구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해법이 있을까? 저자는 성장 거부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대상 상실'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라고 조언한다.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대상상실'은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죽음, 실연, 실직, 탈락 등 상실의 종류는 다양하다. <이마·1만3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고전, 매 순간 저항하면서 읽어라



질문하는 심대를 위한 고전 콘서트  
김경집·김영수 외 지음

청소년 고전 읽기 강연을 엮은 '심대를 위한 고전 콘서트' 두번째 시리즈 '질문하는 심대를 위한 고전 콘서트'가 나왔다.

문학에서 시작해 역사, 경제, 사회, 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석학과 함께 동서양 고전을 아울러 읽고 살펴본다. 인문학자 김경집의 생텍쥐

페리 '어린 왕자', 한국을 대표하는 '사기' 연구자 김영수의 사마천 '사기' 등 인문학자부터 역사학자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7명이 동서양 고전의 핵심 원문을 발췌하며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강연자들은 각 고전에 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고전을 어떻게 대하며 읽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리 준다. 김경집은 고전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매 순간 저항하며 읽으라고 조언하고 박민수는 헤르만 헤세의 독서관을 언급하며 독자와 고전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빗대어 이야기한다. <꿈결·1만58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맛있고 정직한 뷔거리를 위해 직접 검증하다!  
**맛거리 X파일**  
매주 금요일 밤 11시

MC 김진 채널A가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CHANNEL A  
채널A  
www.ichannelA.com